

- 본문 : 빌립보서 4장 6~9절
- 제목 :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설교자 : 권성수 목사

· 본문 읽기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 마음의 문을 열며

바울은 빌립보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유익한 권면을 4장에서 더하고 있다. 인간적으로 보면 빌립보교회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숨을 쉬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날마다 입에 풀칠하기에 바쁜 가난과 신앙의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하나님은 절대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하신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6장 25~34절을 펴놓고 다시 읽어보라. 그리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나눔을 통해 정리해보라.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할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6절)
2. 염려를 바꿀 수 있는 “기도와 간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우선 염려를 극복하는 기도는 “선택”이다. “염려하지 말고 대신 즉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기 때문이다. 염려와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당신은 염려가 생기면 기도를 즉각적으로 선택할 수 있겠는가?
3. 염려를 바꾸는 기도는 “집중”해야 한다. 의미가 거의 동일한 단어 “기도”, “간구”, “아뢰다”라는 세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도를 하되, ‘집중해서, 간절하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말씀이다. 기도를 집중해서 하지 못할 때 어떤 시험을 당할 수 있는지 말해 보라.
4. 염려를 바꾸는 기도는 “발견”이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말씀에 주목하라. 염려가 되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이전에 미처 보지 못했던 감사거리를 발견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주시옵소서’가 ‘감사합니다’로 바뀌는 경우가 많다. 당신은 그런 때가 있지 않았는가?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것은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도를 하다보면 아직 어떤 응답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사람의 한계 이후에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런 확신이 들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적용하고 나누어보라.

· 말씀기도제목

1. 염려가 시작되는 즉시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간구”의 능력을 주셔서 창조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간절함과 끈기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2. 염려를 기도로 바꿀 때 “주 안에서” 감사함으로 ‘사람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심’을 확신하고, “범사에 감사”, “미리 감사”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온 교회가 말씀으로 생명사역을 힘껏 감당하게 하옵소서!

